

억불군주 세종도 다급하면 불보살 가피력에 의존

세종의 기도도량 승가사(僧伽寺)

서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로는 세종로이다. 광화문을 시작해서 600m에 이르는 이 거리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를 상징한다. 이 도로가 세종로로 불린 것은 1946년 10월 1일 세종대왕의 묘호를 따서 이름을 붙인 이후이다. 2009년부터 중앙에 광화문광장이 조성됐고, 세종대왕 동상이 세워지면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명소가 되었다.

조선 제4대 임금 세종, 한국인이려면 누구나 존경해 여론조사를 하면 1위에 오르는 인물이다. 실제 그가 보여준 치세를 보면 그렇게 칭송돼도 부족함이 없다. 또한 만 원권 지폐에 그려진 인물 또한 이 분이니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왕조시절 임금은 구중궁궐에서 아름다운 궁녀들의 시중을 받고 산해진미로 식사를 했다. 전하를 호령했으니 그 권한이 막대했다. 이렇게 생활한 임금은 항상 즐거웠을까? 역사를 보면 임금의 생활은 힘겹기 그지없다. 일찍 일어나 윗분들에게 문안하고, 국정을 살피고, 그리고 신료들과 공부를 하다보면 개인시간은 전혀 없었다. 세종 역시 이런 생활을 했다. 요즘말로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다. 이럴 때면 정신적으로 무언가에 의존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것은 불교밖에 없었다. 그런데 조선은 건국하면서 불교를 배척했다. 세종은 선대왕인 태조나 태종보다 강력한 배불정책을 실행해 의존하기가 민망했다.



세종대왕 영정

선교양종 통폐합 사원 대폭 정리하면서도 왕후·태자 등 병환에는 사찰에 기도 올려

왕실의 불교신앙을 지탱해온 내불당을 폐지했다. 세종 15년 정월 내불당을 혁파하고 불상을 흥천사로 이운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도점제를 실시한 것은 양인의 감소로 국가 경제와 군사적인 면에서 생겨나는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도점제는 개국 초 국가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도 강력하게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밖에도 세종은 연소자의 출가를 금지해 수행 인력의 부족을 가져왔고, 철폐된 사원의 불상과 종을 녹여서 병기로 만들었다. 국행불사의 실행을 줄여서 비용을 절약한 것 등 사소한 것을 합하면 조선의 어느 왕보다 불교를 강력하게 억압한 군주였다.

이렇게 불교계를 억압한 세종이었지만 인간적인 나약함은 어쩔 수 없었다. 특히 가족의 질병에 있어서는 더 없이 나약했다. 임금 역시 한 여자의 지아비였다. 자신의 부인인 소헌왕후 심씨가 병이 들자 내전의 어의를 보내 좋은 약을 써가며 치료했지만 차도가 없었다.

세종 역시 여는 임금처럼 여러 명의 후궁을 두었지만 중전에게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자신과 결혼한 이후 외척의 힘에 임금이 휘둘리지 않았으면



세종과 인연이 깊었던 삼각산 승가사. 세종은 찬성사 맹사성을 승가사에 보내 기도 후 왕후가 회복되자 사원전을 늘리고 경내에 독서당을 설치해 집현적 학자들이 독서하게 했다.

하는 아버지 태종의 의도로 진정아버지 심은 대감과 여러 친척들이 죽는 변고를 겪었기 때문이다. 참변을 겪은 탓인지 왕후는 많이 아팠다. 치료에 차도가 없자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기도하고자 했다. 그런데 배불을 많이 한 자신이 사찰을 가기가 민망했다. 군주가 사찰을 찾았을 경우 유생들의 반대가 밧발칠 것도 고민이었다. 그래서 신임하는 신하를 보내 기도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세종 4년(1422) 5월 곡산부원군(谷山府院君) 연사종(延嗣宗)을 승가사에 보내어 약사기도를 올렸다. 이때 우의정 정탁(鄭擻)을 흥천사에 보내 그곳에서도 약사기도를 하도록 했다. 이화영(李和英)을 개경사에 보내어 관음기도를 하기도 했다. 다급한 세종의 상황을 보는 듯하다.

이런 기도는 세종 4년 8월에도 이어졌다. 찬성사(贊成寺) 맹사성(孟思誠)을 승가사로 보내 부처님께 기도했다. 이런 기도 덕분에 왕후는 많이 회복되어 세종을 기쁘게 하였다. 12년(1430) 중전이 완쾌되자 다시 연사종을 승가사로 보내 수륙제를 거행한 것이(승가사지)에 전한다.

세종은 자신의 기도가 성취됐어도 배불정책을 중지하지 않았다. 다만 세종 6년(1424) 4월 7종의 종파를 선교 양종으로 축소할 때 승가사를 배려했을 뿐이었다. 서울과 지방에 수행자들이 지낼 만한 절 36개소를 가려서 양종에 분속시킬 때 승가사는 양주 지역에서 개경사, 회암사, 진관사와 함께 선종 18개 사찰에 속하게 했다. 원래 갖고 있는 사원전이 60

폐유기도 성취에도 억불 그치지 않던 세종 사경·내불당 재건 승불로 말년 어려움 극복

결이었는데 90결을 더해 150결로 늘렸다. 거주할 수 있는 수행자의 수를 70명으로 정했다. 양주 지역에 많은 사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가사 선종 18개 사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세종과의 인연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 후에도 세종은 18년(1436) 승가사에 독서당을 설치해 집현적 학자들이 독서하는 곳으로 삼아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갔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세종이 배불정책을 멈추고 승불의 군주가 된 것은 28년(1446) 소헌왕후의 죽음 이후였다. 왕후가 죽자 세종은 단순히 민심차원에서 수용하던 불교신앙을 적극적으로 숭상하게 되었다. 평소 왕비가 추진하던 사경을 계속하는 한편, 둘째 아들이 수양대군에게 석가세존의 일대기인(석보상절)을 짓도록 하였다. 스스로는 불보살의 가피력을 찬탄하는(월인천강지곡)을 지었다.

또한 자신 스스로 폐지했던 내불당을 세종 30년 재건하여 왕실신앙의 중심으로 삼았다. 이때 재건된 내불당은 세종 15년 정월에 철폐된 것이었다. 이때 불상은 흥천사에 옮겨졌는데 세종은 흥천사에서 이를 위한 범회를 베풀고자 했으나 지신사 안승선의

반대로 범회마저 베풀지 못했다. 이런 내불당이 세종 30년 왕에 의해 다시 궁 안에 세워지게 된 것이다.

세종 31년 6월에는 승도들의 기우법회로 약간의 비가 내리자 왕은 흥천사 기우승 140인에게 불건물을 차등 있게 내린 다음, 이어 승도가 기우해 만약 비가 내리면 기우제 실행에 대한 보답을 정례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왕은 기우법회에 파견된 조정의 감찰까지도 승도와 함께 불전에 배례하는 것을 정례로 삼았다. 또한 세자가 병환으로 늙게 되자 구병정근을 행했고, 세종 32년 정월 자신마저 병환으로 늙게 되자 더욱 부처님의 힘에 의존했다.

세종이 말년에 불교를 신앙하는 자세로 전환한 것은 주위 사람들의 신앙과도 관계가 깊다. 먼저 친형인 효령대군의 승불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세종 슬하의 왕자와 공주들 심지어 그 배우자들까지도 거의 불교를 숭상했다. 세종의 후궁들도 세종이 승하한 다음 집단적으로 출가할 만큼 불교를 숭상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배불정책을 강화하면서도 내면으로는 확신되어 갔던 왕실의 승불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말년에 다가온 개인적인 어려움에 불교의 힘으로 극복하려 했던 세종의 인간적 모습이 떠오른다.



김경집/지각대 교수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햇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2012년형 신상품 특별 할인 판매

휘나햇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하않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맑고 함께 배출되기때문에몸속 (체온)상승되며 신체의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8~10강해지는 휘나햇 온열경영은 3~4년 전 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통하여 많은체험 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햇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미전기발열체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수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 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햇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영양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회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회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 등에 증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원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문의: 070-7804-5358
계좌: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옷나무 진액 참옷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옷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옷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가 좋다

▶ 옷에도 고품질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해매던 사람이 지하 250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옷물을 만들었습니다.

▶ 옷에 대한 슬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옷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착한 참옷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옷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